

수아가 만든 방탈출(?)에 성공한 상훈이에게.

안녕~ 😊 이걸 읽고 있다는 건 오빠가 모든 카드를 맞게 입력했다는 뜻이겠지? 맞아~ 수아의 미니게임은 여기까지야! 사실 오빠한테 편지를 신박하게 보내기 위한 수작이었어. ㅋㅋ 엽서 보낼 때마다 급하게 쓴 게 명 마음에 걸려서.. 잘까? 바쁜 와중에 내 장난에 놀아나 주셔서 고마워♡

얼마 전에 내가 어떤 꿈공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..? 너무 지나가듯 말해서 기억이 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꿈공이가 어거웠단다.

우리가 만난 첫날부터 방탈출을 하기도 했고, 내가 평소에 방탈출류의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, 오빠가 방탈출 성공해보고 보라고도 해서 언젠가 방탈출은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! 😊 하지만 오빠는 상상도 못했겠지? 히히.

어땠어? 재밌었어? 쉬웠어? 어려웠어? 편지를 다 읽고 나면 나한테 소감을 꼭 알려줘~ 앞으로 우리의 남은 장거리 연애도, 결혼 생활도, '우리'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닥쳐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야.

@ahsoobat 의 (전혀) 도움 안 되는 힌트처럼ㅋㅋ 여기저기 조건을 구해 봐도 막막한 일들이 분명 있겠지만 ~ 우리 같이 즐겁게~ 방탈출 게임은 하듯 ^^ 인생의 어려움들을 잘 헤쳐 나가 보자♡ 한 치 앞도 예상 못 하는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상상도 못 할 것들을 예비해 두셨을까? 하는 기대감으로 채워 보자. 분명 재미있고 행복할 거야! 😊 정말정말 사랑해♡ 그리고 너무 보고 싶어.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화이팅♡♡

2024년 3월, 수아가.

p.s. 숨겨진 메세지들은 다 찾았니? ㅎㅎ